

아시아-유럽 · 지중해 컨물동량 크게 증가

2005년 1-11월 532만TEU로 13% 늘어

지난해 아시아에서 유럽과 지중해로 수출된 컨테이너화물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2005년 1월부터 11월까지 아시아에서 유럽과 지중해로 수출된 컨테이너화물(구주운임동맹 가입선사 수송량)은 532만TEU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3%가 증가했다.

이들 화물의 최종 도착지 기준으로는 지중해지역이 전년동기에 비해 22% 증가한 140만TEU를 기록했으며, 북유럽항 화물은 392만TEU로 10%가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.

유럽서항 및 북유럽주로 수출된 컨테이너화물의 선적기준을 보면, 중국이 210만TEU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% 증가했으며, 시장점유율 역시 54%로 과거 최고치를 기록했다.

이어 일본은 5% 증가한 36만TEU, 한국은 4% 증가한 15만TEU를 각각 기록했다. 하지만, 홍콩을 비롯하여 대만, 태국, 인도네시아는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.

특히, 유럽항로는 정기선사들의 소석률이 일제히 90% 가까운 숫자를 나타내는 등 물동량이 견조한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.

그러나 지난해 가을에 이 항로 취항선사들이 시도한 운임인상은 북유럽노선에서 다소 고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 또 연료유 상승 등의 비용 증가도 수익을 압박하고 있다. 이 때문에 운항선사측에서는 물동량의 증가추이와 비용 증가 등을 감안하여 운임인상 실현이 향후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.

아시아역내 컨테이너물동량 증가세 둔화

지난해 1-11월 857만TEU로 6% 증가

아시아 역내항로 주요선사가 정리한 2005년 1-11월 중의 컨테이너화물 수송량은 전년 동기대비 6% 증가한 857만TEU로 집계됐다.

이들 컨테이너화물 가운데 건화물은 821만TEU로 전년 동기대비 6%, 냉동화물은 36만TEU로 5%가 증가했다. 또 일본 관련항로에서는 수출이 5% 증가한 157만TEU, 수입은 15% 증가한 191만TEU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두드러졌다.

지난해 일본 관련항로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한국이 18% 증가한 15만TEU, 기타 주요국이 32% 증가한 23만TEU, 홍콩이 10% 증가한 25만TEU, 베트남이 10% 증가한 4만7,000TEU에 달하는 등 두자리수의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이다.

일본항로 이외에서는, 중국을 필두로 베트남, 홍콩, 대만 등은 수출량이 증가했지만, 한국, 캄보디아, 싱가포르를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나 증가세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.